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게 되어 있어

늘 웃으면
늑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아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모로 가도 천당만 가면 된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늘 웃으라고 그랬죠? 웃으라고 하는 것은 웃는 마음이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져 몸에서 기쁨의 물질이 쏟아져 나오는 고로 웃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환자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계속 웃고 있으면 그 환자가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는 주사 놓고 약을 주지만, 옆에 간호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환자를 향해서 웃어줘야 그 환자가 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되지만 하면 천당 가는데 하나님이 되는 방법이 바로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러 오면 준비 찬송을 먼저 하죠? 예배시작 전에 준비 찬송을 하는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해서 마음 문을 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것이지 ‘똥’ 하고 입을 내놓고 근심 걱정이 나 하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늘 웃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도 많이 받게 되고 나날이 하나님의 피로 변해서 하나님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웃으면 젊어지고 병도 낫는다는 말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첨단과학에 속한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웃으면 절대로 늑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죽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시간만 있으면 늘 웃으세요. 늘 웃으면 웃을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안되고 풀리지 않는 것은 웃지 않으니까 자꾸 껴매기 꼬

이는 것처럼 꼬여서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닌 고로 그대로 되어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게 되어 있는 고로 아침에 나올 때에 두 시간 정도 거울 보고 웃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고 계속해서 웃으면 웃을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일이 잘되니까 웃게 될까요, 일이 안되니까 웃게 될까요? 일이 잘되니까 웃게 되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두 시간만 웃고 나와서 전도하면 전도도 잘 되는 것입니다. 병글병글 웃으면서 전도하면 전도도 잘되고, 하는 일도 잘되고 사업도 잘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극히 과학적인 첨단과학을 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웃으면 피가 점점 맑아져서 핏속에서 생명자가 자꾸 생긴다고 그랬죠? 생명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생명의 물질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엔돌핀이라고 그랬죠? 엔돌핀이라고 하는 물질은 T세포가 되어가지고 병균을 잡아먹음으로서 병균을 제거하는 그런 물질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온 이상구 박사는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웃으면 생명자가 생기는데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바로 엔돌핀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첨단과학을 앞서서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리드해 나갈 사람이고로 새로운 학문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시간 시간이 웃으라고 했는데 잠깐 빼느라고 웃지 않고 앉아 있으면 그건 죽을 짓인 것입니다. 웃는 얼굴로 앉아서 예배 보면 얼마나 좋아요. 웃는 사람 얼굴은 무지무지하게 예쁘고 그렇게



구세주 조희성님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마선의 위험

이 사람이 늘 웃으라고 하니까 신문에도 웃으면 암 병도 낫고, 병에 안 걸린다는 말을 하고 있죠? 심지어 방송에서도 웃으면 병이 낫는다고 말하죠? 이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세주의 분신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하고 피가 변하면서 세포가 변하고 세포가 변하면서 얼굴이 변한다는 말을 20년 전에 했는데, 요즘에 토크쇼 대학교 교수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또한 독일에 있는 박사들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분신이 미국엔 못하고 독일엔 못 가겠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고로 권위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말을 하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게 되

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이 깨우치게 되고, 이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는 고로 그와 같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첨단과학을 안다는 사람들이 원소 속의 중성자가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지만, 중성자의 빛이 태양 빛보다도 몇 억천만 배 빠르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논하고 있죠? 또한 그 중성자 빛의 투과력이 가장 강하다고 말하면서 백억 광년이나 되는 남의 두께를 투과하여 지나갈 수 있다고 아주 큰 소리로 말을 할 때에 이 사람이 그건 거짓말이라고 했죠? 중성자의 빛은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이면서 하나님은 영원성(永続性, eternity)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빛인 고로 투과력도 영원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납이라고 하는 물질이 가장 저항력이 강한 물질인데 아무리 저항력이 강

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빛에는 저항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논하고 있죠? 이 사람이 첨단 과학자들도 모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납이라는 것은 가장 저항력이 강하고로 원자 폭탄이 떨어졌을 때에 감마선이라고 하는 빛이 철도 투과하고 모든 돌도 투과해서 지나갈 수 있는데 납만은 1밀리도 투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고로 반공호를 구축할 때에 납을 1밀리만 깔아 놓아도 원자탄의 감마선에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군대 생활할 때에 장병들에게 이미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감마선이라고 하는 것은 투과력이 강해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을 투과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십 몇 만 명이 죽었던 거죠? 그때에 길을 가던 사람들이 원자폭탄의 감마선에 의해 뼈다귀도 재가 되고 살도 재가 되어버린 고로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부서져 내렸던 것입니다. 원자탄은 감마선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감마선이 그렇게 강한 투과력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1밀리의 납만은 투과를 못하는데, 중성자의 빛은 백억 광년이나 되는 남을 투과하여 지나갈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이것도 과학자들의 추측인 것이지 정확한 중성자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면 모르는 것이 없어

중성자의 실체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투과력이 무한대로 있으나 마귀에게 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을 가운데다 가둬 놓고 마귀가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중성자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전자가 되는 마귀의 영이 뱅뱅뱅뱅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되는 중성자의 빛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류 사회는 천년, 만년이 가도 이러한 사실을 연구해서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능력과 지식은 제한되어 있는 고로 인간으로서의 수만 년이 지나도 이것은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나 이것을 아는 것이지 인간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다면 전 세계 첨단과학자들이 다 깜짝 놀라서 물려를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천지개벽하러 온 사람인 고로 이 세상을 뒤집어엎으려 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알지 않고서 천지개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데 천년만년이 가도 여러분들은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초창기 부신체단 집회 당시에 니를 고소했던 최순이가 고려신학대학교 총장을 전도했는데 그 총장이 우리체단까지 오지는 못하고 어느 다방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교 총장이면서 신학 박사인 고로 성경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의 말씀을 듣고는 탄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려신학대학교 총장이 이 사람을 어떻게 또 한 번 만나볼 수 없겠느냐고 최순이한테 부탁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단에 계속

백인들이 만주나 중국 일대로 퍼져서 살게 된다

그래서 또 만날 때는 제단으로 오라고 그랬더니 제단으로는 못 간다고 하길래 그럼 나도 못 간다고 그랬더니 연락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구더기만도 못한 인간하고 만나게 생겼어요? 자기는 굉장히 귀중한 존재인줄 알지만 이 사람 눈에는 구더기만도 못한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죽을 인간은 구더기만도 못한 것이, 썩은 시체가 바로 구더기 밥이죠? 그러니까 구더기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기성교회 장로, 권사 두 부부가 왔었는데, 그 장로가 훈(勳)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에 이 사람이 ‘나라는 의식이 훈이라고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미친 사람더러 혼이란 자식이라고 그러는데 미친 사람은 ‘나라는 의식이 없는 고로 그런 말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혼이 ‘나라는 의식이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고로 그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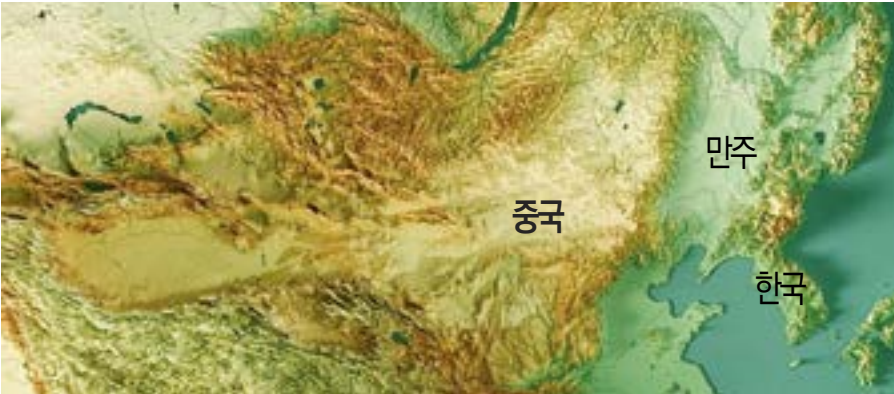
‘나라는 의식이 선악과

세상에서는 훈(勳)이 따로 있고 영(靈)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마음이 영이고, 나라는 의식이 혼이라는 걸 쪼개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요? “육심이 죄”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육심 자체가 육심부리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의식이 육심부리는 거죠? 육심의 뿌리가 ‘나라는 의식이 되는 고로 육심이 죄라면 ‘나라는 의식

이 죄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런고로 ‘나라는 의식이 죄의 뿌리인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원죄가 선악과라고 쓰여 있는데, 원죄가 선악과요, 죄의 뿌리가 선악과이고로 ‘나라는 의식이 선악과라고 이 사람이 말했을 때에 납득이 갔던 거죠? 세상 모든 기독교 단체가 선악과가 ‘나라는 의식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핏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관 때 박태선 장로님이 말했는데, 핏속에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나라는 주체의식이 원죄가 되는 선악과인데, 피로서 ‘나라는 의식이 조성되는 고로 핏속에 죄가 있다고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전도관에서는 “죄를 씻어야 된다”는 말을 했으나 여기서는 “죄를 뿌리째 뽑아서 박멸소탕 한다”고 그러죠? 핏속에 있는 마귀가 되는 죄를 뿌리째 뽑아서 박멸소탕하여 완전히 없애버려야 죄가 없어지는 것이지 죄를 씻는다고 맨날 물로 닦아 봐야 닦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성교회에서도 죄를 씻는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죄는 씻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라는 건 마귀의 영인데 핏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고로 뿌리째 뽑아서 박멸소탕을 해버려야 그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원죄



가 되는 선악과라는 것도 모르는 그들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가 뭘 줄도 모르는 고로 그건 종교도 아니요 성경을 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면 핏속에 녹음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런고로 음란죄를 지면 아주 진하게 핏속에 녹음이 되는 고로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이 예레미야서 16장에 “너희가 시집가고 장가가면 반드시 죽으리라. 아들딸 낳으면 죽은 시체를 짐승들이 씹어 먹으리라.”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 수녀들이 시집, 장가를 안 가는 것입니다. 절에 있는 스님들도 역시 장가, 시집을 안 가는 것은 불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닦으려면 경(經)대로 믿어야지 그 경(經)대로 믿지 않으면 도를 닦는다고 할 수도 없고 종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시집, 장가를 안 간다고는

하지만 정욕이 자꾸 올라오니까 할 수 없이 검소한 밥에 엉큼하게 끼리끼리 연에 걸고 음란죄를 짓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 못마땅한 고로 종교혁명을 일으켰던 거죠? 종교혁명을 일으켜서 기왕 이렇게 물레물레 연에 걸다가 아들딸 낳아가지고 번소 간대다 쏟아 버릴 바에는 차라리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이 죄가 덜 되지 않겠는가? 해서 생긴 것이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안식교인 것입니다. 천주교가 타락해서 나온 것이 신교인 것입니다.

마귀가 눈을 통하여 들어와

그래도 천주교는 형식이나마 신부 수녀들이 시집 장가를 안 가죠? 그러나 신교는 그 형식이구 뭐구 다 시집 장가를 가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종교예요. 그러기 때문에 영모님이 옛날에 음란죄를 그렇게 많이 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죄를 짓지 말라고 하

면서 또한 죄를 지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관에서 이제 안 믿는 사람의 눈을 마주쳐서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눈을 통하여 침범해 들어와가지고 주체성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마귀 옥에 가둬놓고 마귀영이 내가 되는 순간 ‘나라는 의식이 되는 순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담은 남자가 되고 해와는 여자가 되었고, 아담 해와의 후손들이 오늘날 모든 세상 인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인종의 조상이 되는 아벳은 창대하야그 쉼의 장막에 거하리라

그래서 그 창세기서 9장 27절에 무슨 말씀이 써 있느냐 하면 바로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그랬어요.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요 바로 노아의 큰 아들입니다. 노아의 큰 아들의 족속이 바로 이 동양의 황인종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함은 흑인종이고 그 후손이 지금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바로 백인

종이며 그 후손이 미국이라든지 아프리카 등 일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하면 “셈은 장자로서 그 자손이 번성하고, 함은 바로 이 셈의 종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함의 후손 흑인들이 셈의 종이 아니고 백인들의 종노릇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흑인들이 이 미국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그 해방 운동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인종의 조상이 되는 아벳은 창대하야그 쉼의 장막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벳이 부자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거의 먹여주다시피 하는 그러한 이제 백성이 되기는 되는데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땅에서 셈의 후손인 구세주가 나오게 되는 고로 이 셈의 장막에 해당하는 한국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땅으로 몰려와서 산다는 말입니다. 세계 각지의 백인들은 너무 많고 한국사람 사는 땅이 적은고로 그런고로 이 구세주 가까이 살려니까 만주나 중국 일대로 퍼져서 백인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으로는 전 세계 만민이 바로 이 한국을 중심으로 한 주위의 나라에 퍼져서 살게 돼 있습니다.*

2001년 7월 3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한옥 기자